

마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다!

19th, 11, 2017 중고등부 설교안

[인물배경]

교재 p18 함께 읽기

1. 주의 긍휼하심을 사랑한 마태

[마9:9-13]

9절. 마태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세리는 엘리트 집단 이었음. 로마의 관료로 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언어를 구사한 것으로 예상된다. but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친로마 성향이면서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 비재했던 세리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분위기였다.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함.

13절. “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호6:6)->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심

a.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신 예수님

전통적인 유대인 관점 :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예수님의 관점: 죄의 병든자 모두에게는 의사가 필요함. ->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함.

b.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에 대해 부정적이었을까? 로마 황제 헤롯 antipas를 위해 일했던 자들이 세리였음. ->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굉장히 경멸했음

[교재 p20- “세리” 에 관한 설명 함께 읽기]

c. [적용]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 죄의 병이 든 모든 사람.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의 의로는 죄병에서 치료 받을 수 없다.

- 죄병의 증상 : 우울함, 공허함, 교만, 시기 질투, 모든 악 등등

- 인간이 생각한 죄병의 치료책: 신께 대한 희생물(자기희생, 사람의 의, 도덕적 행동, 사람의 관점에서 선을 행함, 종교행위 등등)-> 진정한 치료약이 되지 못함

즉, 마태는 세리로서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병에 걸려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병든자였음.

- 죄병을 치료할 약은 ?

주의 **긍휼하심(mercy)**- (죄로 인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 죄병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만 믿기를 거부한 사람, 교회밖에서는 예수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 사실 세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미가6:8}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d. 마태는 주의 긍휼하심을 사랑한 사람이었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존재 였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힘입어 그분과 남은 생애를 함께 걸었음. -> 우리 모두가 그와 같게 되기를 소망함. / 미6:8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자.

2.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

[눅5:27-32]

27절.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he left all, rose up, and followed him.

a.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①시작은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버리는 것.**

영이 죽은 상태로 죄인의 신분인 내가 가졌던 모든 것(사상, 가치관, 고정관념, 성격, 습관, 인관관계, 취미활동, 기호식품 등등)-> 비성경적인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함.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여 주님을 맞아드릴 준비를 해야 함./ 우리가 지난 시간 이성교제, 음악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있는가?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

b. ② 일어나 ->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들로 채웠다면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야 한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내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이고 입증하는 살도록 다짐해야한다.

{고후13:5} -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매일, 매순간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친구들과의 대화, 놀이, 공부, 온갖 문화생활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c. ③ 그분(예수님)을 따르라.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님.** Total truth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처음엔 육적인 혈통으로 레위라고 불렸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the gift of God)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 가게됨-> 즉, 전 인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정리 및 적용]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원 받기 전에 자아를 모두 버리는 것+ 일어나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내안에 계심을 입증하는 것+ 내 기준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추구하는 것.★

<적용 예시> (마26:6-13)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

- **사람의 기준에서 선** : 8~9절 -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게 좋지 않은가? 교회에 헌금하면 손해 아니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평등, 자비를 추구함

- **예수님의 기준에서 선** : 10절- 예수님의 평가: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다. -> 복음 선포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함->왜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과 다른 선을 제시하셨는가?

예수님의 기준의 선(good)의 의미가 무엇인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마땅히 돌려 드려야 할 경배와 사랑을 표현 하는 것.**

여인은 주의 긍휼하심을 진정으로 알았던 사람-> 믿음의 본을 보여줌)- 세상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 so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인간임.

3. 정리

마태는 주의 긍휼하심을 사랑한 인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는 결단의 삶을 사는 것.

4. 나눔

Q.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인가? (자아를 솔직하게 열고 서로의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Q. 내가 생각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